#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몸, 意生身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⑮ 의생신(意生身)

"세존이시여, 또 마치 번뇌의 연(緣)과 유루업(有漏業)의 인(因)으로 삼계(三界)를 내는 것처럼 무명주지의 연과 무루업(無漏業)의 인으로 아라한 · 벽지불 · 대력(大力) 보살들의 세 가지 의생신(意生身)을 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지위와 저 세 가지 의생신이 나는 것과 그리고 무루업이 나는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는 것이므로 연이 있는 것이고, 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의생신과 무루업(無漏業)이 모두 무명주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유애주지(有愛住地) 등 네 가지 주지는 무명주지로 업이 같지 않나이다. 무명주지를 여의는 것은 네 가지 주지를 여의는 것과는 달라서 부처님 지위에서 끊는 것이며, 부처님의 보리(菩提) 지혜로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 · 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는 끊었으나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재한 힘을 얻지 못하고, 증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무루를 끊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무명주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의생신(意生身)'이란 범어 마노마야(manomaya)를 번역한 말로 부모가 낳은 육신이 아닌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을 말한다. 의성신(意成身)이라고도 한다. 오온(五蘊)에 의해 구성되는 몸이 아닌 의온(意蘊)에 의해서 구성되는 몸이다. 이 의생신은 불보살의 경우와 범부 중생의 경우가 다르다. 중생의 의생신은 잠자다 꿈속에 나타나는 몸처럼 정혈(精血)의 연을 빌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의생신이라 하지만 업력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사람이 죽은 다음, 다음 생의 몸을 받을 때까지의 중유기간 곧 영가로 있는 상태도 의생신으로 본다. 그러나 불보살의 경우는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원력으로 의생신을 나타낸다고 한다. 특히 부처님의 경우는 여의불(如意佛), 혹은 수락불(隨樂佛)이라 한다.

불교의 일반적인 교설로 볼 때 삼계라는 세계가 무명에 의한 중생의 업에서 생기고 다시 무명의 힘에 의해 미계의 의생신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이 무명이 끊어진 부처의 지위에서도 의생신은 중생의 의생신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생신이 생기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고 한다.

첫째,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뜻대로 몸을 변화시켜 나타날 때. 둘째, 사람이 죽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중유(中有)의 기간에 잠정적으로 있는 몸. 셋째, 삼계(三界)의 괴로움을 벗어난 성자가 성불할 때까지 지니는 몸이다. 〈능가경〉에는 부처님이 대혜보살에게 의생신에 대하여 말해주는 대목이 있다. "대혜여! 의생신(意生身)이란 비유하건대 생각이 움직임에 신속하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의생신이라 이름하느니라. 대혜여! 비유컨대 심의(心意)는 한량없는 백천유순(由旬,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밖에서도 생각으로 먼저 갖가지 여러 사물을 보고 염념상속(念念相續)하여 속히 그곳에 이르나니, 산하석벽(山河石壁)이 아무런 장애를 하지 못하느니라. 의생신이 이와 같아 여환삼매(如幻三昧未)의 힘으로 신통이 자재하여 여러 곳을 내왕하나니, 생각이 본래 중생의 원을 성취하여 주는 까닭이니라." 이는 보살의 경계에서 생기는 의생신을 말한 것이다.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서 설해지는 불 · 보살의 활동이 대부분 의생신이다. 부처님의 화신도 결국 의생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번뇌가 머무는 곳을 다섯 가지로 구분, 견일처주지는 사계의 견혹(見惑)을 말하고, 애욕주지는 욕계의 사혹(思惑)이다. 색애주지는 색계의 사혹이며, 유애주지(有愛住地)는 무색계의 사혹이다. 견혹의 지적인 번뇌를 말하고 사혹은 수혹(修惑)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적인 번뇌다.

〈승만경〉에서는 아라한, 벽지불 등은 유애주지의 번뇌까지 끊어도 마지막 다섯 번째 무명주지는 부처님만이 끊는다 하여 무명주지의 끊기 어려움을 거듭 말하고 있다.

번뇌를 유루(有漏), 무루(無漏)로 구분하는 것은 누(漏)는 객관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육근(六根)에서 허물이 새어 나온다는 뜻으로 성문, 벽지불의 경계에서는 번뇌가 증상하지 않는 것을 무루라 하고 대승에서는 번뇌와 함께 있지 않다는 뜻으로 무루라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해탈 · 열반 위해 반드시 염불수행을…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㊳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1

불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신앙수행법 중에서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염불수행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염불수행을 하는 방법과 염불수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염불수행에 따른 증과(證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불교의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은 대승불교시대에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시대에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칭명염불수행을 주로 하였습니다. 칭명염불(稱名念佛)이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되풀이하여 생각하기 위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단절 없이 입으로 부르며 염하는 수행법입니다. 칭명을 통한 염불수행은 고통 속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자대비를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구세력과 본원력을 믿으며, 보살이 갖추신 지혜와 대자대비심에 바탕을 둔 보리심을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해 끝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초기불교 당시부터 그 중요성에 대해 초기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일아함경〉에서는 불교수행 가운데 염불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마땅히 한 법(一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한 법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며 모든 선(善)이 널리 이르게 되고, 감로의 맛을 얻어 무위처에 이르며, 문득 신통을 이루어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하여 사문과(沙門果)를 얻어 열반에 이른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염불이다."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비구들은 이 염불하는 수행을 인연하여 무위처에 이르고, 신통을 얻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 ·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불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염불수행은 불교의 수행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불교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염불수행은 불교의 모든 수행법 가운데 참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수행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수습(修習)하고 있는 수행법이므로 매우 중요한 불교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수행의 증과(證果)가 매우 수승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갖추신 지혜와 대자비의 구세력을 믿고 의지하며 공덕을 기억하며, 아울러 수행자 스스로도 관세음보살을 닮아 완성하려는 각오로 염불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수행자 스스로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무명업식(無明業識)의 작용을 끊고 마음의 본성으로 되돌아가 진여본성과 상응(相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해탈 · 열반은 물론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지혜를 얻어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⑮ 사자후에 대한 큰 경 ①

# "물 퍼내지 말고 그릇을 깨라"

**"세존이시여, 릿차비족의 아들 쑤낙캇따는 가르침과 계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베쌀리 시의 대중에게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에게는 인간을 뛰어넘는 원리가 없고, 고귀한 님이 갖추어야 할, 지극히 탁월한 앎과 봄이 없다. 수행자 고따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가르침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수행을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바라고 수행한다면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가르침의 언어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바르다면 그는 몸과 마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수행을 삼지 않을 것이다.

고귀한 님은 무엇일까? '고귀하다'는 언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뭇 삶은 정신적으로 높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고귀하다고 단정 짓겠지만, 수행자는 몸과 마음이 겪는 일을 '내가 겪었다, 내가 겪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고귀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바른 앎이 도래하면 거칠든 미세하든 물질이 가지는 고귀함을 고귀함이라 이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귀한 님은 정신과 물질을 떠나 정신과 물질을 여읜, 있는 그대로의 봄이다.

고귀한 님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선택하지도 않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어떤 학인이 운문선사에게 여쭈었다.

"이 학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때, 도리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문선사가 대답하기를 "수미산이니라"고 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였는데, 왜 운문선사는 거대한 산인 수미산을 빌어 최고의 허물이라고 일갈하는가. 수행을 지어가다 보면 진정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버려도 그만 버리지 않아도 그만인 것만 속이듯 버리고 담기를 반복하는 오류를 겪게 된다. 이를테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만약 물을 영원히 없애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릇에 담긴 물을 계속 퍼내야 할까? 아니면 물을 담은 그릇을 깨뜨려야 할까? 길게 망설일 필요 없이 그릇을 깨뜨리고 나면 당장 물을 퍼내는 수고로움이 없을 것인데, 차일피일 담긴 물을 퍼내고 있으니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일을 수행 삼아서 지치지도 않고 이어간다. 물질은 그 그릇을 '나'라고 여기며 물을 퍼내듯 행위를 청정하게 만드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앎과 봄은 그 그릇을 나라고 지칭할 수 없다.

가르침을 떠난 쑤낙캇따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봄을 긍정할 수 없기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스승이 나라는 이 그릇을 부수는 것을 기꺼이 모른 체 하는 제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아마 백이면 백, 모조리 부수려 할 때는 흔적도 없이 도망간다. 그릇은 부수지 않고, 좋은 가르침만 담아주기를 바란다. 그 그릇을 깨는 일이 가장 큰 가르침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릇이 부서지고 나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룬다. 아무것도 배울 것 없이 고귀한 님이다.

한 바 없이 가르침 따라 그릇을 부수고 나니,
그 전에 지어 놓은 집이라는 것, 한낱 지푸라기 집이었네
탐진치 한 마음에 불타버리는 것도 모르고,
대궐 같은 집인 줄 알던 마음, 참으로 부끄러워라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